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2년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 주제: 언어학 연구의 실제적 활용 - 이론, 교육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
-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경영대학과 인문대 1호관 사이)
- 일시: 2012. 10. 20(토) 09:00 ~ 18:00
- 등록비: 1만원(점심 및 프로시딩스 포함)
- 주최: 대한언어학회
- 주관: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 후원: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 *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발간 되었음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제언

- 초등학교 6학년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오현욱

(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 과정)

1. 들어가는 말

1997년 영어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국정 교과서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학습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2011학년도에는 3, 4학년의 영어 교과서가, 2012학년도에는 5, 6학년의 영어 교과서가 중학교처럼 국정이 아닌 검인정 교과서로 나오게 되었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어 교과서로 영어를 학습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서를 사용함에 따라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영어 소재나 어휘, 사용 표현 등 영어 학습 내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교과서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문화 소개가 각 출판사의 교과서들에는 많이 수록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소개가 삽입되면서 출판사의 집필진들은 우리나라의 지명이나 음식 이름, 민속 명절 또는 민속놀이 등을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 각 출판사 마다 서로 다른 표기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표기법은 교과서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관심을 국어 교과에서가 아니라 영어 교과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이므로 (정경일, 2002) 보다 통일된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2012학년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쓰게 된 초등학교 6학년 영어 교과서(6종) 및 교사용 영어 지도서에 나오는 로마자 표기 예들을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로마자 표기법

우리에게는 2000년 7월에 공시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포함한 네 번의 공식 표기법(1948, 1959, 1984, 2000)이 있었다. 이 중에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교과서는 가장 최신의 2000년 문화 관광부에서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2000년 문화 관광부에서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중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인명과 지명, 문화재명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사법

1948년과 1959년 발표된 2가지 문교부안과는 달리 2000년 현행 문화관광부 표기법은 1984년 문교부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표기법 제1장 1항에서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예: ‘설악’ Seorak, ‘종로’ Jongno).

2) 인명 표기

2000년 표기법은 인명 표기에 대해 제 3장 4항 및 7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1984년 안과 마찬가지로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름을 붙여 쓰는 것(예: 민용하 Min Yongha)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이름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1984년 표기 방식 (예: Min Yong-ha)도 허용하고 있어서 2000년 표기법은 사실상 인명 표기에 여전히 혼란을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름 내의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예: 한복남 Han Boknam). 표기법에 따른 철자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철자 사이에 차이가 커서,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는 항목을 제 3장 4항 (2)에 명시하고 있다.

3) 지명 표기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는 지역 명 뒤에 붙임표(-)를 넣어서 표기하도록 한다(예: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도봉구 Dobong-gu). 하지만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예: 청주시 Cheongju, 순창읍 Sunchang)고 하여 또 다른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4) 문화재명 표기

2000년도 표기법의 제3장 6항에 보면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없이 붙여 쓴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 남산 Namsan, 경복궁 Gyeongbokgung, 다보탑 Dabotap)

3. 초등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 분석 사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7차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편찬한 1종 교과서(국정 교과서)가 아닌 2종 교과서(검인정 교과서)이다. 이 검인정 교과서는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 교과서와는 달리, 민간 부문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개발한 뒤 국가로부터 검정을 받아 만들어진 교과서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총 6권이 검인정을 받아 학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경우 외래어 표기와 국어의 로마자표기는 각각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도 교과서에 나온 로마자 표기는 국가에서 정한 규범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정확한 표현으로 알고 학습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들이 교과서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배우는 학생들의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6학년 6개의 검인정 교과서에 나온 모든 로마자 표기를 조사하여 부문별로 나누어 표기 방식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인명의 표기

가. 성의 표기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성을 표시 하지 않고 이름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예: 김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자기소개,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을 나타낼 때 성을 적고 있다. 교과서에 나온 성은 다음과 같다.

성	표기	성	표기	성	표기
강	Kang	신	Sin	진	Jin
김	Gim / Kim	심	Sim	홍	Hong
박	Pak / Park	이	Yi		

이들 표기 가운데 2000년 표기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Kang), '김'(Kim), '박'(Park), '이'(Yi) 등이다. 그러나 이들 표기는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이들 표기가 규정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다. 2000년 로마자 표기법에 '성씨는 따로 규정한다'고 한 뒤에 지금까지 로마자 성씨 표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할 수 있다. 게다가, 규정에 부합한 Gim과 Pak은 '김', '박' 씨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표기이다. 이 현상은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충실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교실 현장에서는 Ms. Gim으로 표시한 교과서와 Mr. Kim으로 표시한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같은 성씨가 아닌 다른 성씨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Bak'도 '박' 씨 보다는 '백' 씨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며, 'Park'을 영문로마자자로 쓰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영어 성 표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혼란을 주기 쉽다.

정희원(2009)은 '제 2차 성씨 로마자표기시안'과 양병선(2009)의 '음절단위 성씨 영문로마자 표기'에서와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성씨는 G대신 K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주장(양병선, 2011년 재인용)대로 'Kim'으로 통일 한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씨에 대해서는 정희원은 'Pak'을, 양병선은 'Park'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 또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이름 표기

2000년의 이름 표기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원칙(붙여 쓰기)에 근거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다. 성과 이름의 순서

이름이 붙여 쓰기의 원칙으로 통일되어 제시된 것에 반해, 성과 이름의 순서는 교과서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경

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1) My name is Mina Kim. (천재교육-함순애)
- (2) My name is Kim Hodong. (YBM 외 다수)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게 되어 있어 (2)번의 경우가 원칙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미 문화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first name(이름)을 먼저 말하고 last name(성)을 나중에 말하기 때문에 (1)번 또한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지명 및 자연지물명 표기

가. 행정구역 표기

행정구역 표기는 붙임표의 사용과 생략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특히, ‘시’ (si) 단위는 생략을 해서 표기를 하고, ‘동’ 을 표기할 때는 -dong으로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에 반해, ‘도’ (do)는 표기를 하거나 생략하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나타난다. 다음은 행정 구역 단위의 표기 이다.

Andong	Busan	Changwon
Dae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anwon-do	Geojedo
Gochang(고창)	Gunsan	Gwangju
Gyeongju/Gyeongju(경주)	Haeundae	Hwaseong(화성)
Jeju-do/Jeju/Jeju island/Jejudo	Jeongdongjin	Jeongseon
Jeonju	Jindo	Masan
Mokpo	Pyeongchang	Samcheok
Seoul	Sokcho	Suwon
Ulsan	Wando	Yeonggwang
Insa-dong	Jeong-dong	
Jongno-gu/Jong-no/Jongno	Mok-dong	Myeong-dong
Sadang-dong	Sinjeong-dong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제주도에 관한 표기이다. 제주도는 교과서에 따라 Jeju-do, Jeju, Jeju island, Jejudo로 나타나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Jeju-do와 Jeju는 맞는 표현이다. Jeju Island(교학사)는 일반적인 영어권의 표기 방식을 따른 것이기는 하나 교과서에서 Jeju-do와 Jeju Island가 혼재되어 사용되어 있어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Jejudo는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종로’의 표기 또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Jongno-gu와 Jongno는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Jong-no(교학사)는 잘못된 표현이다.

또 하나 새로운 점은 YBM(최)에서는 교사용 지도서에 로마자표기법과 한글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다(예: Hwaseong(화성)). 교과서에서 나오는 서울이나 부산은 Seoul 또는 Busan 등 영어로만 표시했지만 화성, 고창, 경주는 로마자 표기 후에 한글로 함께 제시하였다.

나. 자연지물명, 문화재, 인공 축조물명 표기

자연 지물명, 문화재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써야 한다는 로마자 표기법은 잘 지켜지고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dong Hahoe Maeul	Baekdusan	bulguksa
dabotap	Dok-do/Dokdo	Goindol(고인돌)
Gyeongbokgung	Hahoe(하회)	Hangang
Han-gang Park	Hanguk Gwan	
Hallasan/Mt. Halla/Halla Mountain		Hanji Museum
Jeju Olle	Jeongseon oiljang	Jeonju Hanok Maeul
Jirisan	Namsan Tower	Mt. Toham
seokguram/Seokguram(석굴암)	seokgatap	Seoraksan
Seongsan Ilchulbong		

자연지물명, 문화재, 인공 축조물 명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앞의 제주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를 Dok-do로 쓸 것인가 아니면 Dokdo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과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도는 Dok-do, Dokdo, Tok Islands 등 총 16가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양병선, 2011에서 재인용), 현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면 Dok-do가 맞는 표기이지만 정부의 공식 표기는 ‘Dokdo’로 되어 있어 이 또한 학습자들에게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두 번째로 문제 되고 있는 점은 ‘산’에 대한 표기법이다. 산 이름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있다.

- (1) Hallasan - 천재교육(윤), 대교
- (2) Mt. Halla - 교학사
- (3) Halla Mountain - 교학사

현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1)번 유형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2)번은 Jeju Island와 마찬가지로 영어권의 일반적인 표기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3)은 ‘산’을 일반명사로 번역하여 함께 쓰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표기법이다. 특히 교학사에서 학생들에게 보이는 교과서에 ‘Mt. Halla / Mt. Toham’과 ‘Halla Mountain’을 함께 병기해 놓음으로써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위험이 있다.

위에 제시된 예시 중에서 ‘한강’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Hangang이 맞는 표현이며, 교학사(김)에서 제시한 Han-gang은 잘못된 표현이다.

3) 음식 이름 표기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재가 바로 음식이다.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음식 소개 인데, 어떠한 음식이 소개 되고 있으며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bibimbap	bibimguksu	bindaetteok
bulgogi	cheonggukjang	doenjangjjigae
galbi	gimbap	gimchi/Gimchi/kimchi
injeolmi	jajangmyeon	japchae
pajeon	sanjeok	sikhye
songpyeon	sujeonggwa	tteok
tteokbokki	tteokgalbi	tteokguk

음식 이름 표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이다. 영어교과서에서는 김치를 크게 ‘gimchi’와 ‘kimchi’로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유일하게 천재교육(합) 교과서에서만 ‘kimchi’로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교과서에서는 ‘gimchi’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천재교육(합) 교과서(Kimchi Museum)와 교학사 교과서(The gimchi Museum)에서는 우리나라 ‘김치 박물관’을 소개하는 글이 나와 있어서 학생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하게 되어있다. 2000년 현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gimchi’로 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식메뉴 124품목 외국어표준 기준안’(2009)에는 우리나라 김치를 ‘kimchi’로 표현하여 한식 세계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전 중에 하나인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도 ‘김치’를 ‘kimchi’로 등록하여 이미 전 세계인들이 김치를 ‘kimchi’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를 세계인들은 ‘kimchi’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만이 ‘gimchi’로 사용하는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정경일(2002)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에서 ‘gimchi’는 표기법에 맞고, ‘kimchi’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표기법으로 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둘 다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 음식을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하여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 절기나 문화 이름 (전통 놀이, 악기 포함)

절기나 문화의 표기는 다음 단어들에서 나타나는 데 모두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

baduk	beoseon	bokjoris
bokjumeoni	Chuseok	doljabi
gayageum	geomungo	gimjang
giwajip	got	hanbok
hanji	hunjang	hwangap
janggu	jegichagi	jojojaggi
Jungchujeol	pansori	seodangs
ssireum	taegwondo	taekkyeon
talchum	yunnori(Do, Gae, Geol, Yut, Mo)	

다만, 단어의 복수형의 ‘-s’를 로마자 표기법에 바로 붙여 표기함으로써 (예: bokjoris) 원래 단어와 혼동되는 경향이 보인다.

5) 기타 낱말들의 표기

기타 낱말들에는 위인의 이름이나 고유명사, 동화책에 나오는 이름 그리고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 것 등이 있다.

Chochungdo	Geobukseon	Hanguel
Hong Gildong/Honggildong	Hong Gildong-jeon / Honggildongjeon	
Jeopalgye	Jiphyeonjeon	Joseon
King Sejong	Kongjwi	Patjwi
Samjangbeopsa	Sin Saimdang	Sim Cheong
Simcheongjeon	Seon-nyeo	Seoyugi
Sonogong	Yi Sunsinn	Yi Toegyed
Yi Yulgok	Bballi-bballi	Binggeulbingguel

위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2000년 로마자 표기법의 제 7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그동안 써온 표기대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시중에서 홍길동의 이름 Honggildong(대교)은 성과 이름을 구분하지 않은 잘못된 표기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홍길동전’의 로마자 표기를 살펴보면 Hong Gildong-jeon(천재교육(윤))과 Honggildongjeon(대교)에서 표기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붙임표 없이 사용한 Honggildongjeon이 로마자 표기법에는 맞는 표현이다. Hong Guildong-jeon으로 표기한 것은 한글이름(홍길동)과 한자(傳)를 구분하기 위해서 표기 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낱말들 중 특이한 사항은 붙임표(-)의 사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의 예 ‘홍길동전’ 외에도 ‘선녀’를 음절 단위마다 붙임표를 사용하여 ‘Seon-nyeo’ (교학사)로 표기하고 있으며, ‘빨리빨리’는 두 음절을 묶어서 ‘Bballi-bballi’로(천재교육(함)), ‘감사합니다’는 한 음절씩 구분하여 ‘Gam -sa-ham-ni-da’ (천재교육(함))로 표기하고 있다. 반면에 ‘빙글빙글’은 붙임표의 사용 없이 ‘Binggeulbingguel’ (교학사) 하나로 표기하여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진마저도 로마자 표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영어교과서의 로마자 표기법 실태 분석 결과 및 제언

지금까지 7차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한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로마자 표기법의 사례를 통해 교과서마다 얼마나 다르게 표기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 로마자 표기법(2000)에서 ‘ㄱ’에 대한 표기를 <g>과 <k>를 쓰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영어교과서에서 표기의 불일치를 가져오게 되었다. 먼저 성씨 표기에 있어서 ‘김’씨가 ‘Gim’과 ‘Kim’으로 표현되었고,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가 ‘gimchi’와 ‘kimchi’의 두 가지 형태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g>든 <k>든 하나를 선택하여 로마자를 표기하는 교과서가 있는 반면에, 성씨는 ‘Kim’을, 음식 이름은 ‘gimchi’를 혼용해서 쓰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러한 혼용은 영어 교과서로 로마자 표기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하나의 표기법으로 통일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사람의 ‘김’씨의 99.8%가 ‘Kim’을 사용하는 것(김세중 2001)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kimchi’로 등록된 사실 등 여러 가지 현실성을 고려한다

면 두 단어만큼은 ‘Kim’ 과 ‘kimchi’ 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앞장의 사례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는 하나의 표기법으로 일치된 ‘태권도(taegwondo)’ 도 같은 의미에서 표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경기인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taekwondo’ 로 표기되고 있는 반면에 교과서에서는 ‘taegwondo’ 로 표기되고 있어 ‘김치’ 와 마찬가지로 세계인과의 교류를 고려할 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자연 지물명 표기 형식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특히 교과서에서 강(river) 이름과 산(mountain) 이름, 섬(island) 이름 표기에서는 철자의 문제라기보다는 표기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산은 위에서 제시한 대로 세 가지 형태(Hallasan, Mt. Halla, Halla Mountain)로 제시되고 있어서 표기 형식면에서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 제시하는 대로 Hallasan으로 표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셋째, 붙임표(-)의 사용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2000년 로마자 표기법에서 붙임표(-)의 사용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 구역 단위에서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앞에 붙임표(-)를 넣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은 붙임표(-)없이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영어교과서에서 행정구역 단위의 붙임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어들은 붙임표(-)가 있어서 음절 단위 하나하나마다 쓰는 경우, 두 음절 단위마다 쓰이는 경우, 전혀 쓰이지 않는 경우로 아무런 원칙 없이 표기되고 있음을 보았다. 붙임표(-)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 제시한 대로 발음상 혼동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붙여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7차 개정교육과정 6학년 영어교과서에 나온 로마자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는 2000년 문화관광부 고시 정부 표기안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을 따라야 한다(부칙 3항). 그러나 교과서를 살펴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집필진의 의도에 따라 표기법을 달리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특히, 하나의 교과서 안에서 로마자 표기법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로마자 표기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 로마자 표기법을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수가 72.6%(정경일, 2001)임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서 나오는 영어 로마자 표기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출판된 교과서 중 한 교과서는 6학년 1단원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 표를 제시하여 자기 이름을 표기법에 맞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 여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이미 여권에 자기 이름을 영어로 만들어 쓰고 있는 6학년 학생들에게 ‘Kim’ 씨를 ‘Gim’ 으로 ‘Park’ 씨를 ‘Pak’ 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을 가르치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는 표기법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혜숙, 2001)

올해 지난 번 검인정 교과서를 집필한 민간 업체에서 2014년에 사용할 3, 4학년 교과

서를 집필하고 있다. 지금 집필되고 있는 교과서도 2000년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갖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로마자 표기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김정우, 2008)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과서에서만큼은 한 가지로 통일하여 제시를 해줌으로써 더 이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우. 2008.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연구 9:67-93.
김혜숙. 2001. 초등 학교의 로마자 인면 표기 교육에 대한 제언. 영어어문교육 7:129-145.
양병선. 2011. 영어철자와 발음 기준 국어의 음절단위 영문로마자 표기법. 서울 : 한국문화사
정경일. 200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인식과 교육 실태. 이중언어학 18: 303-322.
정경일. 2002. 영어 교과서의 로마자표기양상: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박영순 편저 *21세기 국어학의 현황과 과제*(pp.497-516). 서울: 한국문화사.

* 6학년 영어 검인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출판사 이름순)

1. 교학사 (김정렬 외)
2. 대교 (이재근 외)
3. 천재교육 (윤여범 외)
4. 천재교육 (함순애 외)
5. YBM (김혜리 외)
6. YBM (최희경 외)

발표자: 오현욱

소속기관: 전주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연락처: 010-2053-7222

e-mail: englishwiki@naver.com